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마련' 위한 현장소통 나서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5.13.)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 13.(수) 14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서울 중구)를 방문하여 지식재산 정책 및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특허심사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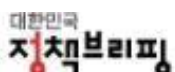
지식재산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국제 인공지능(AI)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준비 중인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서에는 사람만이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발명 과정에서 사람이 기술적 문제를 설정하고, 결과물을 선택·검증하는 등 사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원 안내서를 보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과도 관련 제도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 정정심판 제도 개선안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들도 함께 공유하고 특허심사 정책·제도·서비스에 관한 불편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간담회 개요 / 사진은 간담회 후 배포 예정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진섭 (042-481-8321)
		담당자	서기관	김길남 (042-481-5398)



□ 추진개요

- (일시 및 장소) '26. 5. 13. (수)/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서울)
- (논의 내용) 특허심사 정책·제도·서비스에 관한 개선사항 발굴
- (참석자) 지재처 국장 외 4명 / KINPA 사무국 2명, 정책위원회 위원 9명

□ 주요 논의사항

- (안건 1) 초고속심사* 신청대상 분야 확대 및 요건 완화 필요성
* 기존 우선심사보다 기간을 단축하여 심사하는 제도(착수 1개월, 중간서류 1개월)
- (안건 2) 인공지능(AI)활용 발명 출원 안내서(안)
- (안건 3) 특허심사 품질진단 지표 개선(안)
- (안건 4) 특허 정정심판제도 개선(안)
* 통상실시권자 동의 없이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되,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에게 청구사실을 통지하도록 法 개정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14:00 ~ 14:10	(10')	참석자 상호인사
14:10 ~ 14:40	(30')	안건 1 설명 및 상호 토론
14:40 ~ 15:10	(30')	안건 2 설명 및 상호 토론
15:10 ~ 15:40	(30')	안건 3 설명 및 상호 토론
15:40 ~ 16:10	(30')	안건 4 설명 및 상호 토론
16:10 ~ 16:30	(20')	불편사항 및 요청사항 청취